"전력누수 없다" "선제골로 승부"

〈전남〉 〈성남〉

■K-리그챔피언십 오늘 전남-성남 준PO 격돌

전남, 박항서 감독 재계약 호재…성남, 중앙수비 공백 클 듯

프로축구 K-리그 성남 일화와 전남 드래곤즈가 마지막 한 장만 남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성남과 전남은 25일 오후 7시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단판으로 치러질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정규리그 2위 팀 포항 스틸러스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놓고 다툴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 아시아 프로축구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이다.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성남은 K-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2007년 출전한 때가 마지막이었고, 전남은 FA컵 우승팀으로서 지난해 대회에 참가했다.

성남과 전남은 지난 주말 열린 6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각각 인천 유나이티드, FC서울을 누르고 준플레이오프에 올랐다. 어렵게 포스트시즌의 첫 관문을 넘어선 터라 선수들의 의욕은 넘친다.

다만 전남이 하루 먼저 6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좀 더 휴식을 가졌다는 점, 성남 주축 중앙수비수인 사샤와 조병국이 퇴장당해 이번 경기에 뛸 수 없다는 점 등이 변수다.

성남은 전남과 상대 전적에서 23승18무15패로 앞서 있고, 2006년 9월17일 이후 안방에서는 전남에 5경기 연속 무패(3승2무) 중이다. 올해는 세 번 싸워 성남이 2승1패를 거뒀다.

인천과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해 이번에도 관중석에서 팀을 지휘해야 할 신태용 성남 감독은 "지난 서울과 경기를 치르는 걸 보니 전남 선수들의 투지가 좋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더라.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정신 무장도 잘 돼 있다"면서 "전남은 수비가 좋아 우리로서는 먼저 실점하면 힘들어진다. 선제골을 넣어 상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감독은 중앙수비의 공백을 전광진, 박우현, 김태윤 등으로 메울 계획이다.

서울과 경기 이후 수원에 숙소를 잡고 용인에서 훈련해 온 박항서 전남 감독은 그 동안 성남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터라 이번 맞대결을 껄끄러워하면서도 "작년에 겪었던 실패를 경험삼아 내년에는 아시아 정상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말로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전남은 지난해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 앉았다.

이미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약속까지 받은 박 감독은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성남은 서울 못지 않게 공격 자원이 좋고 , 중앙수비에 대한 대책도 이미 강구했을 것"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큰 부상자도 없고 전력 누수도 없다. 상대 수비라인을 파괴할 방법을 찾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짜릿한 질주 24일(한국시간) 중국 중부지역 후난성 천저우시에서 열린 2009 양쯔컵 카레이싱대회에서 참가차량 지프 한대가 급경사를 내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우·김지혁 등 20명 상무 입대 확정

30일 논산훈련소 입소

2010년 광주 그라운드를 누빌 광주상무의 신입선수 명단이 발표됐다.

국군체육부대는 24일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성남 일화의 김정우와 포항 스틸러스의 골키퍼 김지혁, 경남 FC 소속의 전 국가대표 김동현 등 총 20명의 신입선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 외에도 전남 드래곤즈 주광윤(통산 118경기 출장), 울산 현대 김영삼(통산 113경기 출장), 대구 FC 김주환(통산 83경기 출장) 그리고 전남의 리틀 정경호까지 상무에 합류하면서 내년 시즌 광주 홈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소속별로는 울산과 대전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가 3명, 전남·경남·인천이 각 2명, 수원·성남·포항이 1명씩 포함되어 있다.

신입선수들은 오는 30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내년 1월 8일까지 군사훈련을 받는다. 퇴소 후에는 성남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에서 일주일간 상무 교육을 받는다.

신입선수들이 선수단에 합류하는 내년 1월18일 부터는 상무의 본격적인 2010시즌이 시작된다. 상무는 내년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제주도에서 1차 동계훈련을 갖는다. 이후 2월22일까지는 목포로 이동해 2차 동계훈련을 갖는다.

상무는 신입선수들과 함께 올 시즌 맹활약한 최성국, 최원권, 박병규, 배효성, 전광환, 장현규 등을 내세워 내년 시즌 돌풍 재현에 나선다는 각오다. /김여울기자 wool@

"우승하니 좋네" KIA 가족 동반 사이판 여행

KIA 타이거즈가 2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사이판 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은 2009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기념으로 마련된 '특별한 여행'이다.

선수들은 매년 훈련을 위해 괌과 일본 등지로 떠나지만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출국하는 건 선수들에게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출국을 앞둔 선수들은 한껏 들떠있다.

12년만의 우승을 기념해 구단측이 경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들까지 동반하고 떠나기로 하면서 여행단 규모도 70여명에 달한다.

프로데뷔 첫 해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의 영예를 안은 '아기 호랑이' 안치홍은 그동안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여행을 떠난다. 최희섭도 부모님과의 오붓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유부남 선수들은 아내들을 대동하고 여행을 떠난다. 2009 시즌 MVP 김상현은 이번 여행에서 시즌 중 못다한 남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올 계획이다.

김상훈과 김종국은 부인은 물론 두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족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점 아빠로 소문난 이대진은 신종플루 걱정 때문에 두 아이를 남겨두고 여행길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달 6일 결혼식을 올리는 이현곤은 예비 신부와 미리 허니문을 떠난다.

솔로족도 많다.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은 가족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나홀로 여행을 선택했다.

언더 콤비 손영민·유동훈도 솔로여행을 선택, 시즌과 마찬가지로 룸메이트로 함께 할 계획이다.

우승을 지휘한 조범현 감독은 건강상의 이유로 우승여행에 불참한다. 조 감독은 한·일클럽챔피언십이 끝난 뒤 감기와 장염으로 병원신세를 지면서 이번 우승 여행의 지휘를 황병일 코치에게 위임했다.

한편 25일 오후 8시10분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선수단은 사이판에서 스노클링, 카누, 카약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게임 및 관광을 즐기고 28일 오후 7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체전 전남 선수단 해단식

최복음·나아름 최우수선수

지난 10월 대전에서 열렸던 제90회 전국체전에 참가했던 전남선수단의 해단식이 25일 오후 4시30분 전남도청 민원동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해단식은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임원·입상 선수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단기 반환, 성적보고, 우승배 봉정, 각종 시상, 장학금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또 이날 시상에서는 단일팀으로 전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광양시청 볼링팀(금5)과 단체전 은메달,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전남체고 근대5종부가 최우수팀상을 수상하고, 볼링 최복음(광양시청, 4관왕)과 사이클 나아름(나주시청, 3관왕)이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남을 가장 빛낸 최우수선수로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근대5종 박상구(전남체고), 사이클 홍현지(전남미용고) 선수가 전남체육회 출입기자단이 결정하는 미래상의 영예를 각각 차지하였고, 전남볼링협회와 전남사격연맹이 08년 89체전 대비 500점 이상 득점이 상승하여 성취상 단체로 선정됐다.

이날 해단식을 가진 전남선수단은 지난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685명의 선수단(임원 441, 선수 1,244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48, 은메달 47, 동메달 66개의 메달과 종합득점 3만 7,799점을 획득하여 당초 목표했던 10위를 달성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서구청 구교동 '최고 검객' 등극

양구군수배 에뻬 男 일반 金

여자부 김미정 은메달 그쳐

'30대 검객' 구교동(38·광주 서구청)이 전국 정상에 올랐다.

플레잉 코치인 구교동은 24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09 양구군수배 전국남녀 에뻬 종목별오픈대회 남자일반부 결승에서 현재 국가대표인 정진선(화성시청)을 맞아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대접전을 펼친 끝에 15-14, 1점차로 꺾고 힘겹게 금메달을 차지했다.

노련미와 파워가 뛰어난 구교동은 이날 경기에서 파워를 이용한 공격인 후레시(Fleche·몸을 던져 찌르기)를 적중시키며 패기의 정진선을 제압했다.

이날 우승으로 구교동은 지난 전국체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래며 올시즌 첫 우승의 기쁨도 누렸다.

한편 여자일반부 경기에서는 김미정(광주 서구청)이 에뻬 결승에서 오윤희(강원도청)에게 9-15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포츠쥬게

25일(수)

▲고양 세계역도선수권대회 (13 : 35·MBC)

▲V리그 〈현대건설 : 흥국생명〉(14 : 10·KBS1), 〈KEPCO45 : 대한항공〉(18 : 40·KBSN SPORTS)

▲여자 프로농구 〈신세계 : 금호생명〉(16 : 50·SBS스포츠)

▲프로농구 〈동주 : KCC〉(18 : 50·SBS스포츠)

▲프로축구 준플레이오프 (18 : 50·X-ports)